

## 큐비즘(Cubism)이 활용된 현대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 2010년 이후를 중심으로 -

윤정아·이연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 Adapting the Cubism - Focused on the Fashion since 2010 -

Jeong-A Yoon · Younhee Lee\*\*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13. 9. 30. 접수; 2013. 11. 22. 수정; 2013. 11. 25. 채택)

#### Abstra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ubism on fashion and figure out how its formative characteristics have been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in the 21st century, focusing on the period since 2010. The propose of the study is to broaden research scope in fashion design through analysis and inspection on formative aspects among the cases which have proposed brand - new fashion designs by adapting cubism in fashion.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ubism in painting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ashion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cubism are reflected, a literature review has been conducted by referring to domestic and foreign books, previous papers, academic journals and Internet resources on cubism. For an empirical study, in addition, photos of cubism-applied modern fashion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http://www.samsungdesign.net>.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Firs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were obtained in following categories; character of figure, simultaneity, reiteration and facticity.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n cases after apply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e character of figure by the geometric shape of cubism was observed in fashion as well. After dismantling and reconfiguring garments, simultaneity has been expressed in an exaggerated and distorted manner through regular and repetitive overlapping or overlapping of irregular shapes. In terms of facticity, novelty has been delivered with the use of heterogeneous materials, using collage and patchwork techniques. Third, simplicity and functionality in cubism - style garments in the early 20th century have disappeared in contemporary design in the 21st century. Now, a dynamic aspect is only found. Fourth, unlike common paintings, 2D textiles are added to a 3D body in fashion design. In addition, it can be observed from multiple angles depending on the movement so that it can display more diverse shapes. Therefore, it could be the origin of inspiration to many designers.

*Key Words:* Cubism(큐비즘),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적 특성), Character of figure(도형성), Simultaneity(동시성), Reiteration(중첩성), Facticity(사실성)

#### I. 서론

복식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창의

---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Fax. +82-2-2294-1190

E-mail : yiyhee@hanyang.ac.kr

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술양식으로 볼 수 있다. 각 회화 양식에서 나타났던 조형적인 특성과 색채는 복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공통된 표현기법을 보이면서 현대 복식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창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Jean. A. Hamilton(1987)은 복식이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등 문화의 한 단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술사에서 전환이자 동시에 단절의 지점인 큐비즘(Cubism)은 시각예술의 양식에 근원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키며 그 후의 미술, 영화, 건축, 복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큐비즘은 원근법이라는 절대적 시각방식을 변화시킨 급진적인 아방가르드 운동으로, 현대미술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예술사상 15세기 원근법을 제 1의 혁명이라 한다면 그 이후의 제 2의 혁명은 20세기 초 큐비즘이라 할 정도로 현대의 추상예술을 잉태시킨 큐비즘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하다(정연자, 1998). 이러한 큐비즘은 전성기였던 1910년대부터 패션디자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패션디자인 너들에 의해 컬렉션의 테마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의상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큐비즘을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분석적 큐비즘 회화의 기하학적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성필규, 2010), 큐비즘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송아라, 2009), 큐비즘 작품을 응용한 한지 패션디자인 연구(최은경, 심화진, 2006)와 큐비즘 회화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디자인(이동근, 2004)에서는 큐비즘의 조형적 관점에서 현대의 패션 디자인들을 분류, 분석하고, 큐비즘에 나타난 조형성과 조형미를 반영하여 작품제작을 하였다. 큐비즘의 대표작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세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제작을 한 연구로는 꿈의 분석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피카소(Picas비즘)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위수연, 2006)와 피카소의 큐비즘 작품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강경자, 1993)가 있다. 이은경(2002)은 현대패션디자인에 표현된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특

성들이 형태, 디테일, 색상, 소재, 양 등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고찰하였고, 정연자(1998)는 복식에 표현된 큐비즘에 관한 연구에서 회화와 복식에서 표현된 큐비즘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관련성을 정리하였으며, 김일분(1993)은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큐비즘 미술이 현대 의상 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큐비즘 회화의 모티브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수직, 수평선과 사선의 다양한 면 분할에 초점을 두고 작품제작을 했던 선행 연구 사례들은 많았지만,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다양한 조형미를 다룬 사례는 부족하며 실증적 연구를 위한 사례분석은 2009년 이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큐비즘이 복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21세기의 현대패션에서는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2010년도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큐비즘을 패션에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패션을 제안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 조형성을 분석하고 고찰하여 패션디자인 연구의 활용 영역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큐비즘 패션의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서적, 큐비즘과 현대패션에 관하여 선행 연구된 관련 학위논문들, 학회지 그리고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하여 큐비즘이 접목된 현대패션의 사진자료들을 <http://www.samsungdesign.net>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2010년 S/S부터 2013 F/W까지로 한정하고, 지역적 범위는 파리, 밀라노, 런던 컬렉션의 여성복 중 RTW(Ready To Wear)를 대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큐비즘의 발생과 전개

미술사에서의 큐비즘은 20세기 초 야수파 운동을 전후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1907년부터 1914년 사이에 일어났던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을

말한다. 1908년 살롱 도톤(Salon d'Automne)에 출품된 조르쥬 브라크(Georges Braque)의 「레스 타크의 집들」이란 연작에 대해 심사위원장이었던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가 '조그만 입체(큐브)의 덩어리'라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다. 큐비즘이라는 용어는 1911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Edward F. Fry, 1995).

큐비즘은 20세기 초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변혁으로서 서양미술사에 있어서 초기 르네상스와 비교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원근법을 탈피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간의 혁명을 이룩하여 전통적인 회화의 개념과 시각세계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시각예술의 양식에 근원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킨 큐비즘은 그 후의 미술, 영화, 건축,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Neil, Cox., 2003).

한동안 비평가들은 후양 그리(Juan Gris)의 <예술과 저술>에서 유래된 초기의 '분석적' 단계와 후기의 '종합적'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미술사학자 존 골드링(John Golding)은 큐비즘을 피카소와 브라크가 주도했던 '분석적 큐비즘'(재현에서 추상으로 나아가는 단계)과 후양 그리가 주도했던 '종합적 큐비즘'(추상에서 재현으로 나아가는 단계)으로 나누고 또한, '분석적 큐비즘'을 세잔느(Cezanne)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형성기'와 자연적인 외관에 대해 보다 극단적이고 단호하게 단정된 흔적을 보이는 '발전기'로 세분하기도 하였다(John Golding, 1988). 시기별 큐비즘의 작품사례는 <표 1>과 같다.

초기 큐비즘 시기(1907~1909)는 세잔느에게서 영향을 받은 브라크와 피카소에 의해 시작된다. 대상의 자연 형태를 단순화시켰으며, 단일시점에 의한 원근법적 시각이 아닌 다시점(多視點)을 이용해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를 한 화면에 표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회화에서는 사실주의에서의 광선, 명암, 원근, 질감, 채색법을 무시하고 3차원의 깊이, 공간, 입체감들의 전통적인 표현법이 소멸하게 되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사물의 본질적인 모습을 "원, 원통, 원추"라고 정의하였던 세잔느의 이론을 심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기하학적 구체, 삼각추, 원통형, 입방체 등을 응용하여 대상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큐비즘의 창시자인 피카소와 브라크는 세

잔느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형태의 화면구성을 의도하면서도 반드시 기교함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송아라, 2009).

분석적 큐비즘은 주로 피카소와 브라크 그리고 1912년의 후안 그리스의 작품들에 의해 절정에 이른 시기이다. 현실적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성에 의해 해체한 면을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과학적, 분석적 큐비즘인 것이다(이영환, 1988). 분석적 입체주의의 시기에는 대상을 단일시점의 원근법으로는 대상의 본질을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을 다시점에서 바라 본 것들을 한 화면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묘사한다. 이 시기의 표현은 분해된 형체가 전후좌우로 서로 뒤섞이면서 마치 거울 면을 반사하듯이 표현하여 '시각적인 확대'를 획득하게 되었다(이은경, 2002). 특히 분석적 큐비즘 시기의 작품은 점, 선, 면 등의 회화의 기본 조형요소들로 분해된 형태를 평면에 재구성하여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 큐비즘은 초기와 분석적 큐비즘 시기의 작업들이 종합되어 화면에 다시 사실적 요소가 도입되는 시기이다(이영환, 1988). 즉, 오브제들을 재조립하기 위해 오브제의 분석과 해체를 그만두었다. 그 대신 커다란 사각형을 이용해 단순하게 평면으로 구성하고 밝은 색채와 함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신문지, 벽지 등 인쇄물을 붙이는 콜라주(Collage), 뽀빠에 콜레(Papier-colle) 기법을 탄생시켰다.

## 2. 큐비즘 회화의 특성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은 가시적 형태를 묘사하는 외적 실재에서 회화 자체의 내적 범칙에 충실 하는 것이다. 과거의 인간형상의 표현이나 대상의 구체적인 재현을 추방하고 화면상에 새로운 형을 구성하여 대상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추상주의의 회화에 이르게 된다.

자연 형태의 묘사에서 대상의 핵심을 강조한 다거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생략하고 단순화하거나 왜곡시키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자연형태를 기하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선을 단순화하고 구체, 삼각추, 원뿔, 원통형 등 입방체

〈표 1〉 시기별 큐비즘의 작품사례

초기의 큐비즘(1907-1909)	분석적 큐비즘(1910-1912)	종합적 큐비즘(1912-1914)
		
조르주 브라크 <에스타끄의 집> 1908년 (출처: 입체주의 (p.102) 닐 콕스 2003, 서울: 한길아트.)	후안 그리 <피카소의 초상>, 1912년 (출처: 입체주의 (p.207) 닐 콕스 2003, 서울: 한길아트.)	파블로 피카소 <유리잔과 쉬즈 병>, 1912년, 붙인 종이, 구아슈, 목탄 (출처: 큐비즘 (p.71) 데이비드 코팅턴. 2003, 과주: 열화당.)

를 응용하여 대상이 주는 색, 선, 면 등의 아주 순수한 평면적 요소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이다(박용희 외, 2006). 즉 큐비즘의 창작대상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되고 그 모든 요소는 2차원의 평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되었고 물체의 외관보다는 그의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대상을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하였고, 분석된 형태는 화면에 재구성되었으며, 대상의 외관보다는 내적 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그 분석된 형태만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대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물의 3차원을 표현하려는 새로운 조형 방법이 나타났다(송아라, 2009).

입체주의자들은 하나의 특정한 원근법으로 본 모티프를 묘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을, 앞에서 본 모습, 옆모습, 아래서 본 모습, 위나 측면에서 본 모습, 내부를 들여다본 모습으로 해체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담았다. 큐비즘에 표현된 동시성은 한 장의 캔버스 위에 많은 시점들의 공존을 시각화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2차원적 평면 위에 4차원의 시간상의 미학적 경험의 지속을 표현하는 것이다(정연자, 1998). 4차원을 표현하기 위하여 대상을 분해하고 해체하였다. 즉, 큐비즘은 대상을 해체해서 그 내적 구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4차원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의 시각 방식을 새롭게 인식하

고 대상을 분석, 해체하여 오브제의 완전한 실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시켜 2차원의 평면 안에서 재구성 하였다. 이때 대상은 철저하게 해체되어 작품 속 대상의 시각적 인식이 어려웠으며, 원근법을 무시, 면적으로 표현, 직선을 도입, 면 분할 등의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큐비즘 작품의 경향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해체하였다가 다시 조화롭게 접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큐비즘에서의 중첩의 표현은 작품 속에서 깊이를 가리킨다. 중첩의 개념은 큐비즘의 형태 구성요소 중에서 면의 해체와 분해, 또는 면의 전이에 따른 공간의 중첩에 의해서 평면적 구성을 입체적인 구축으로 전환시켰다. 중첩은 새로운 하나의 공간적 차원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화면 위에 여러 대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즉, 대상을 평면화, 중복 시켜 입체를 다면적으로 단편화하고 이 단편화된 대상을 재조립함에 있어 대상의 윤곽들이 상호침투, 교차하게 된다. 브라크는 추상화로부터 재현해 가는 이미지들을 중첩시켜 나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종합적 큐비즘의 시기에 창안된 콜라주 기법은 대상과 이미지와의 관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이것은 근대 일루전(Illusion) 미학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이동근, 2004). 사실주의 전통에서 벗어난 진보적 사고는 자체의 논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브제를 창조하기 시작했으며 실제 사물의 도입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빠삐에 끌레**에서 시작하여 곧 **플라주**로 전환된다. 플라주는 사물의 형상적, 묘사적 실제의 차이를 탐구하는 수단으로서 사물의 정신적인 리얼리티를 추구하였고 종래의 표현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개념을 다시 혁신시켰다(노석준, 1993). 신문은 실제 신문 조각으로 표현되며 책상 속에 든 나무서랍의 패널은 같은 모양의 무늬 벽지가 사용된다. 그러면서도 종래의 유희물감을 사용하였으며 간혹 나무, 종이, 돌멩이, 금속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플라주의 작업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조형적인 역할과 물질성의 역할이었다. 존 골딩은 피카소의 **콜라주**들과 1913~1914년의 작품들에 대하여 회화개념을, 외부 세계를 모방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그 자체의 독립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실제, 아니면 인위적으로 구축되거나 구성된 오브제로 파악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John Golding, 1988)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콜라주를 여러 가지 면에서 큐비즘 미학의 논리적 결실로 보았다. H. W. Janson(1998)은 큐비즘에서의 **빠삐에 끌레**와 **플라주**는 재현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이미지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재료 그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다.

색채는 큐비즘에서의 생명감을 불어 넣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색채만의 독특한 성격은 감성적으로 수용되는 사물의 본질로 나타난다. 색채는 형태를 그리거나 회화를 장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화가의 개성과 감성을 전달하고 사물의 은유로도 쓰이고 있다. 이런 색채의 모호성은 형태를 위해 고의적으로 색채를 감소시켰고, 자연주의적 명암과 원근법의 구속에서부터 이탈하려는 큐비즘적 사고의 연장을 표출하고 있다(이동근, 2004). 초기 큐비즘에서 색채는 제한되었다.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에서 주조색은 강한 분홍색과 황토색이었고, 청색선을 사용한 얼굴과 가슴의 입체적 표현, 녹색과 붉은색의 띠로 어두운 음영을 표현하였다

(Edward F. Fry, 1985). 세잔느의 방법을 이용한 색채표현은 큐비즘 초기의 전반적인 방법이었고 분석적 큐비즘 단계의 색채는 거의 브라운과 회색, 검정색, 황토색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색채 제한은 화면 안에서의 평면들 사이의 관계 및 구성, 구조의 문제에 강조점을 둔 것에 연유한 것이다(박승순, 1989). 그러나 종합적 큐비즘의 시기에는 플라주의 기법이 색채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3. 큐비즘과 패션디자인

큐비즘이 등장한 1907년경은 벨 에포크(Belle époque)의 시대로서 조형예술에 있어서도 풍요로운 시기였으나 많은 양식의 형성과 와해가 지속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 격동기였다.

20세기 초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른 예술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디자인, 색채, 질감 등에 있어 많은 변화를 공유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회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은 합리성과 구조적인 기능성을 강조한 간결미를 추구하였다. 큐비즘 양식의 기하학적 단순미는 아워글래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이나 아르누보의 과잉장식인 S-curve 실루엣의 형태와 같은 인체를 과장하는 표현에서 벗어나 직물 자체가 만들어 내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통해 원통형의 단순한 입체조형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하렘(Harem) 스커트와 튜닉(Tunic) 스타일, 튜립라인(Tulip line) 등이 이러한 새로운 조형들의 한 예(주명희, 1990)라 할 수 있다. 즉, 과잉장식에서 벗어나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에 치중하며 명쾌한 색채와 기하학적인 문양 그리고 단순한 실루엣의 형태를 추구하였다. 리본이나 꽃, 레이스 장식을 배제하고 간결한 라인으로 처리 하는 데는 폴 뽀아레(Paul Poiret)의 공이 컸으며(채금석, 2001), 가브리엘 샤넬(Gabriell Chanel)과 마들렌느 비오네(Madeleine Vionnet)의 색감과 동시대의 미술가인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색감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

1910년대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뽀아레는 코르셋과 페티코트를 없애고 현대적인 직선적 실



<그림 1> 1911년. Paul Poiret. Kimono Style.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2> 1912년. Paul Poiret. (출처: Cally Blackman. <1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p.30.)



<그림 3> 1912년. Paul Poiret. Harem Style.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4> 1912년. Madeleine Vionnet (출처: Richard. Martin, <CUBISM AND FASHION> p.36.)



<그림 5> 1936년. Madeleine Vionnet. (출처:www.samsungdesign.net)

루엣을 선보이며 육체의 자연스러운 라인을 살려 현대 복식의 개척자로 불렸다(그림 1, 2, 3). 터키풍의 판타롱, 기모노풍의 튜닉 드레스, 터번 등 동양풍의 아이템을 잘 이용했고, 여성의 곡선미를 살린 실루엣을 창조하였다. 허리를 조이지 않는 루즈한 벨트로 장식한 박스형의 투피스 수트, 선명한 수직 줄무늬가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의상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의상의 실루엣뿐만 아니라 모양에서도 기하학을 이용하였는데, 당시 예술작품들과 유사한 추상적인 기호를 의상에 도입하였고 모피 코트에도 비대칭적이고 대담한 문양을 사용하여 마치 착시효과를 의도한 듯하다(송아라, 2009).

동시대에 활동했던 비오네는 ‘패션의 건축가’로 불릴 만큼 코르셋이나 어깨십과 같은 인공물은 사용하지 않고도 원단 자체로 입체적인 동시에 인체에 밀착되지 않는 우아한 곡선을 표현한 디자인을 개발해 내었다(그림 4, 5). 그녀는 인체의 각 부분을 연속된 전체로 파악하고 2차원의 의복평면을 파괴하여 큐비즘 회화 작가들이 시도한 해체와 변형의 방식을 취하였다. 것이었다. 특히 1920년대 기성복에 혁신을 가져다주었던 바이어스재단을 통해 신체곡선을 보다 잘 나타냈으며, 바이어스 재단을 통해 마름모형 드레스, 삼각형 드레스와 같은 기하학적 스타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1920년대의 샤넬은 심플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패션의 혁명을 일으킨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편안함, 활동성, 심플함에 우아함을 가미하

여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샤넬은 사교계의 대모 역할을 했던 미샤(Misia)를 통해 큐비즘의 대가인 피카소, 브라크, 후안 그리,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 등과의 교류를 갖게 된다. 또한 1921년~1924년에 걸쳐 큐비즘 시인 리버디(Reberdy)와 사귀게 되면서 큐비즘의 영향을 받게 된다. 1922년에는 피카소와 샤넬이 함께 제작한 무대의상은 단순한 원통형의 옷으로 그래픽한 줄무늬를 강조한 것이었다(박명희, 1988). 또한 스포츠 웨어로서 바지치마(culotte)는 기하학적인 사각형의 형태로 인체의 형태를 무시하면서도 간결하고 모던한 모습으로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였다(그림 6). 당시 의복의 소재로는 잘 쓰지 않던 저지를 사용하고, 무지와 수평적인 줄무늬 패턴이 있는 소재의 조합(그림 7), 꽃무늬와 트위드의 나열, 트위드 재킷에 견직 꽃무늬의 칼라와 커프스를 댄 것 등은 당시 큐비즘의 꼴라주 기법에서 보여주는 소재의 변화와 다양한 소재의 합성 또는 뜯어 붙이는 듯한 기법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1920년대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단순하고 편안한 의상을 창조해내고자 하여, 처음으로 웨스트 라인이 허리 밑으로 내려와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 등의 인위적인 실루엣을 거부하고, 짧은 머리스타일과 함께 스커트도 과감하게 짧아졌다. 외형상 남녀의 상징적 구분이 없어진 보이쉬 스타일이 1924년까지 유행하였고, 단순성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동시에 표출한 가르손느



<그림 6> 1924년.  
Gabriell Chanel.  
Suimsuit.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7> 1926년.  
Gabriell Chanel.  
Cardigan Suit.  
(출처:www.samsungdesign.net)

룩(Garconne look)이 유행을 주도해 나갔다. 이 시기에 튜블라형 실루엣의 도입은 당시 전위파 미술이었던 큐비즘 연관성을 가지는데 피카소의 ‘피라미드’의상이나 페르낭 레제가 다룬 ‘튜브의 세계’등이 이러한 유행의 미학적 근거가 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요인을 수용함으로써 1925년 가르손느 룩의 완성을 유도하였다(채금석, 2001).

관습적인 표현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큐비즘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경향은 전통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새로운 패션을 향한 일대 혁명으로 이해되었으며, 이에 대해 케네디 프레이저(Kennedy Fraser)는 ‘건축적’ 또는 ‘선형’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러한 ‘건축학적’ 시각은 선의 명확성, 명료한 마무리, 불연속적인

모양과 구조로 특징지을 수 있다(이동근, 2003).

큐비즘의 영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20년대 패션 디자인에서와 달리, 20세기 이후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보이는 큐비즘의 활용양상은 크게 큐비즘 회화의 적용과 의복구성의 입체화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피카소나 브라크의 작품을 응용한 디자인들이 보이게 되었으며, 브라크의 그림을 정교하게 수놓아 장식하거나 켈팅하여 표현하고 입체적인 회화의 표현을 위해 강한 색상 대비를 사용하였다. 큐비즘 오브제의 다양성에 착안한 다양한 공예의 수법을 보여 줌으로써 큐비즘 작품의 모티브를 그대로 옮겨놓는 식의 디자인이 선보였다(그림 8, 9).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신체의 곡선을 따라 입혀졌을 때 이루어지는 입체적인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 복식의 형태 자체에서 입체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나의 조형물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2차원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3차원의 화풍을 이룬 큐비즘의 영향은 복식으로 하여금 3차원의 인체 위에 또 다른 3차원의 형태를 이루도록 하였다(그림 10, 11).

### III.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

큐비즘 회화는 기존의 전통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이고 실험적이며, 예술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풍부한 디자인의 영감을 주는데



<그림 8> Waist for the first devil  
(출처: www.samsung design.net)



<그림 9> Yves Saint Laurent, 1988  
Yves Saint Laurent, Image of Design  
(출처: www.samsung design.net)



<그림 10> Issey Miyake, 1994  
(출처: 20세기 패션(p.281)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2003, 서울: 시공아트.)



<그림 11> Pierre Cardin 91 S/S  
Mode et Mode N.274  
(출처: www.samsung design.net)

의미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문헌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큐비즘 패션디자인이란, 큐비즘의 조형적 특징에서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단순화하여 순수한 평면적 요소인 도형과 다면체 등을 응용하여 표현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복식을 해체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되며, 중첩에 의해서 평면적 구성을 입체적인 구축으로 전환시키고, 이질적 소재들로 사실적 표현을 하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복식들로 그 의미를 제한하였다.

큐비즘의 특성이 반영된 현대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조형성과 용어들을 추출하여 <표 2>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큐비즘의 조형성은 <표 3>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큐비즘이 활용된 현대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을 도형성, 동시성, 중첩성, 사실성으로 도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추출한 조형성과 용어들을 중심으로 큐비즘 패션디자인의 분류기준을 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62인의 디자이너들의 8시즌 작품들 중 322점을 분류기준에 따라 1차 선정하고, 2차 과정에서는 패션 디자인을 세부전공으로 하는 의류학 분야의 박사 4인의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최

중 282점의 수집된 자료를 분류, 분석하였다.

## 1. 도형성

큐비즘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난 도형성은 표현대상을 강조하거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하학적 형태로 생략하고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다. 기하학적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는 원,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기하학적 구체, 삼각추, 원통형, 입방체 등을 응용하였다. 이러한 도형들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도형들을 반복나열, 점중, 확대로 인한 시각적 형태로 나타난다. 또는 면 분할을 이용해 단순한 도형들로 단순화시키기도 한다.

브라이언 레이어스(Brian Reyes)의 2011년 F/W London Collection 작품은 도형의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장식적 효과를 주기도 하며, 삼각추의 조합으로 형성된 실루엣으로 전위적이며 미래적 느낌이 나타난다. 또한, 패션 인체의 구조를 무시한 실루엣을 지닌 구조적 패션은 착장의 고정관념이 극도로 해체, 파괴되어 형태의 변형과 왜곡을 나타내며 인체의 실루엣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공간조형물로 느껴지게 한다. 이는 의복이 단순히 인체에 입혀지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창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다는 새로움을 주기도 한다(그림 12).

<표 2> 큐비즘 패션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큐비즘 회화의 조형적 특성	큐비즘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성필규 (2010)	분석적 큐비즘 회화의 기하학적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도형성, 해체와 재구성, 중첩성	기하학적 형태미 (도형성, 해체와 재구성)
송아라 (2009)	큐비즘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사실성, 동시성, 도형성, 해체와 재구성, 중첩	사실성, 동시성, 도형성, 해체와 재구성, 중첩
이동근 (2004)	큐비즘 회화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디자인	색채와 빛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하학적 형태로의 왜곡과 해체, 새로운 조형성의 추구	생략과 단순화, 변형과 왜곡, 기하학적 조형미(다양한 면 분할)
이은경 (2002)	현대패션디자인에 표현된 큐비즘(Cubism)의 조형적 특성	색채와 조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하학적 형태로의 왜곡과 해체, 새로운 조형성의 추구	기하학적 단순미, 콜라주 기법, 실루엣의 변형과 왜곡, 큐비즘 회화의 적용, 의복구성의 입체화
정연자 (1998)	복식에 표현된 큐비즘에 관한 연구	기하학적 조형, 동시성, 투명성, 플라주	기하학적 조형, 동시성, 투명성, 플라주



<표 3> 큐비즘의 조형성 도출

선행 연구	도형성	기하학적 조형성	동시성	해체와 재구성	중첩성	투명성	사실성	콜라주
성필규	◎			◎	◎			
송아라	◎		◎	◎	◎		◎	
이동근		◎		◎				
이은경		◎		◎				◎
정연자		◎	◎			◎		◎



마르탱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는 의복의 입체화를 통해 인체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별개의 절구형태의 조형물이 인체와 결합해 가슴과 힙을 강조하고 잘록한 허리선의 실루엣을 만들어 낸 듯한 느낌을 준다. 즉 인체를 단순화했지만 오히려 인체의 형상을 더 강조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조형표현을 위해 불필요한 장식선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형태상의 단순함을 표현하였다(그림 13). 2011년 F/W Paris Collection에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크레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인 다이 후지와라(Dai Fujiwara)는 종이접기 방식으로 2차원의 평면적인 소재를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된 3차원의 의상으로 재구성하여 과감하고 입체적인 볼륨으로 구조적인 룩을 완성시켰다(그림 14). 파코 라반(Paco Rabanne)은 2012 S/S 시즌에서 금속성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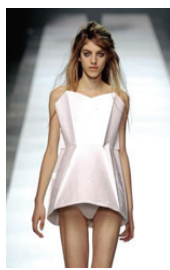
재료 여러 가지 조형적 의상을 선보였다. 주로 커다란 원반 형태를 의상의 다양한 위치에서 과장되게 변형시켰으며, 그로 인해 시각적으로 입체감을 주어 강조하였다(그림 15).

## 2. 동시성

큐비즘 패션에서의 동시성이 가지는 의미는 다(多)시점으로 관찰된 형태들을 하나의 면 즉 하나의 공간에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즉, 다양한 시점의 공존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대상을 해체하여 그 내적 구성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재구성을 하였다. 큐비즘이 사실주의 전통에서 벗어난 진보적 사고를 하였듯이, 복식에서는 실



<그림 12> 2011 F/W Brian Reyes, London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3> 2010 S/S Martin Margiela,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4> 2011 F/W Issey Miyake,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5> 2012 S/S Paco Rabanne,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루엣의 변형과 왜곡으로 전통적인 복식미에서 탈피하여 의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파괴 또는 해체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복식에서는 아이টে임을 해체하여 다른 아이টে임으로 표현하거나 해체한 아이টে임과 다른 아이টে임을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টে임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16>의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착용되어야 할 셔츠를 이미 착용된 셔츠의 일부로 느껴지게 하는 시각적 착각을 유도하며 동시성을 느끼게 하였다. 가진 의상은 착용을 위한 복식의 기능이 아닌 장식적인 이중 착장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썸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son)의 다차원적 봉제는 의복의 구성요소의 형태를 자의적으로 해체하여 왜곡하고 부분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2013 S/S에 선보인 디자인들은 마치 인체부위를 해체하여 무작위로 배치한 듯 비뚤어 진 것처럼 처리해 옷을 항상 정면에서 바라본다는 고정관념의 시각을 배제하여 강한 동시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7). 의복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다른 위치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아이টে임으로 전환시키는 사례도 나타났다. 즉 정형화된 일반적인 형태의 아이টে임이나 혹은 비정형화된 아이টে임으로 재구성하여 시각적 혼돈을 의도하였다. 가레스 퓨(Gareth Pugh) 2010 F/W 의 자켓은 자켓 위에 마치 또 다른 두께감이 있는 트라페즈(Trapeze) 형태의 바디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정선(Jackie JS Lee)의 원피스는 자켓의 패널에 의해 마치 원피스 앞에 자켓을 입은 듯한 시각적 착각을 주며 한 벌에 두 가지의 아이টে임이 동시에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8, 19).

### 3. 중첩성

사전적 의미의 중첩(overlapping)은 ‘여러 층이 겹쳐 있는 형태’를 뜻하며, 큐비즘이 반영된 복식에 있어서의 중첩은 도형의 크기, 색상 등에 변화를 주어 반복하거나 아이টে임의 디테일을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과장된 형태로 왜곡시킨다. 평면적 구성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구축하여 형태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였다.

주로 디테일의 반복 중첩 사례가 많이 나타났으며, 2011년 F/W London Collection에서 디스퍼지션(A La Disposition)의 경우에도, 여섯 개의 원을 동일한 간격으로 네크라인에 겹겹이 쌓아 올려 강조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원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첩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극대화 되어 나타났다(그림 20).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는 2010년 S/S Paris Collection의 작품에서 소매는 반원의 형태로 햄라인은 원의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크기의 점진적인 변화를 주며 중첩시켜 인체를 형태를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그림 21). 또는 디테일의 크기를 규칙적으로 점증시키는 형태와 달리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를 가진 부분들을 중첩시켜 표현하기도 하였다(그림 22). 소재의 중첩으로 풍성한 실루엣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림 23>의 썸므 데 가르송의 작품에서는 의상의 구성선이 아닌 장식효과로서 중첩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사각형으로 재단된 직물들은 몸판 위에 불규칙하게 중첩되어 전형적인 자켓의 형태가 아닌 독



<그림 16> 2010 S/S Martin Margiela,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7> 2013 S/S Comme des Garson,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8> 2010 F/W Gareth Pugh,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9> 2011 F/W Jackie JS Lee, London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20> 2011 F/W A La Disposition, London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21> 2011 S/S Victor & Rolf,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22> 2011 S/S Victor & Rolf,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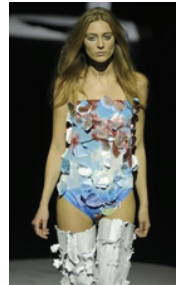
<그림 23> 2013 F/W Comme des Garçon,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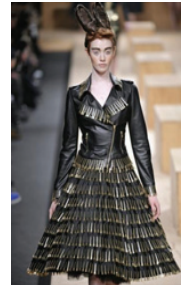
<그림 24> 2010 F/W Rick Owens,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25> 2011 F/W A.F. Vandevorst,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26> 2010 S/S Martin Margiela, Paris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27> 2011 F/W Frankie Morello, Milan  
(출처:www.samsungdesign.net)

특한 입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 4. 사실성

재현에서 추상으로의 표현을 했던 분석적 큐비즘의 시기를 지나 종합적 큐비즘의 시기에는 추상에서 재현을 위한 사실적 표현기법인 콜라주를 탄생시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는 이질적인 장식적 요소들이 사실적 표현으로 부활하여 나타났다. 큐비즘 패션에 나타난 사실성은 서로 성질이 다른 소재들을 조합시키고 이질적인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거나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콜라주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의외의 소재를 복식에 왜곡되게 사용하기도 하며 특이한 소재를 새로운 기법으로 패션에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롭고 실험적인 제3의 소재 도입으로 인해 의외성과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유희적인 일종의 그로테스크(Grotesque)를 나타낸다(정해

순, 1988).

릭 오웬(Rick Owens)은 2010년 F/W Paris Collection에서 소개접질을 삼각형으로 잘라 붙여 면분할을 유도함과 동시에 콜라주 기법이면서 동시에 패치워크의 기법처럼 서로 조각들을 연결시켜 표현하였다(그림 24). 반데버스트(A. F. Vandevorst)의 2011 F/W 작품들은 신문지가 의상의 디테일로 사용되거나 원단과 함께 레이어드 되어 표현되었다. 이것은 종합적 큐비즘의 시기의 플라주 기법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신문지라는 오브제는 의복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독립된 존재로서 소재 그 자체로도 의미가 부여되었다(그림 25).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일상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종이를 의복의 소재로 사용하였는데, 종이를 의복구성의 재료 자체로도 활용하고 거칠게 찢어서 장식적인 요소로도 동시에 응용하였다. 또한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불안정하게 부착된 종이 조각들이 입체적으로 함께 움직임에 따라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그림 26). 2011 F/W Milan Collection의 프랭키 모렐로(Frankie Morello)은 금속 재질의 머리핀들을 장식적 요소로 실루엣의 라인을 원의 형태를 띠며 둘러지며 반복 사용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새로움을 가져다 주었다(그림 27).

#### IV. 결론

큐비즘 회화 시대의 패션디자이너들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단순한 미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현대의 패션디자이너들은 과거에 추구하던 단순미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큐비즘 회화의 모티브를 의상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과거 큐비즘 스타일의 단순기법이 아니라 큐비즘 특성을 다원적이고 다양화된 현대적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복식의 입체적 구현이라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토대로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을 도형성, 동시성, 중첩성, 사실성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는 기하학적 형태, 해체와 재구성, 투명성, 콜라주의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둘째, 도출된 조형적 특성들을 현대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사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순한 면 분할, 2차원적 도형들의 배열, 입방체의 활용 그리고 인체의 실루엣과 무관한 독립적인 3차원의 조형물을 활용하여 큐비즘의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도형성이 복식에서도 나타났다. 다시점을 지닌 과장된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내기 위해 의복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동시성을 표현하였다. 해체와 재구성에 있어서 내부 구조의 해체를 하거나 서로 관계없는 아이템들로 재구성 하였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중첩 또는 불규칙한 형태들의 중첩을 통해서 도형의 크기, 색상 등에 변화를 주어 반복, 점중 시키거나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중첩시켜 과장되고 왜곡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성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소재가 의상과 결합해 왜곡되어 나타나 콜라주와 패치워크 기법의 사용, 의복과 무관한 이질적 소재의 사용으로 새

로움을 전달하였다.

셋째, 20세기 초 처음 큐비즘 양식의 영향을 받은 복식들의 단순성과 기능성들의 의미는 21세기 현대의 디자인에서는 다양화되고 절충되어 사라지고 역동성이 남게 되었다. 현대의 큐비즘 패션디자인은 신체의 곡선을 따라 의복 구성의 입체화만을 추구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복식의 형태자체에 입체화를 시도하여 하나의 조형물로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넷째, 3차원의 대상을 2차원의 평면적인 화폭 위에 표현해야 하는 회화와는 달리 복식 디자인은 2차원의 피륙이 3차원의 인체에 입혀지고 그 움직임에 따라 각각도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큐비즘의 특성을 반영 한다면 단순한 면 분할과 재구성보다는 평면 위에 세워진 3차원의 다면체는 인체의 움직임과 함께 더욱 더 다양한 형상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따라서 큐비즘은 현대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독창성을 이끌어내는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혁신적인 예술사조가 패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새삼 다시 확인하면서, 현재 우리 시대 철학적 가치를 담아낼 독창적 디자인을 모색하는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노석준. (1993). *큐비즘회화의 조형성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1988). 1920년대 샤넬의상과 큐비즘. *건국대학교생활문화연구소 연구 보고 11*, 73-87.
- 박승순. (1989). *큐비즘(Cubism)이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희 외 2인. (2006). 큐비즘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화예디자인 표현 연구.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14*, 248-257.
- 성필규. (2010). *분석적 큐비즘회화의 기하학적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아라. (2009). *큐비즘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연구*



- 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근. (2003). *큐비즘 회화의 조형성을 활용한 현대디자인*. 계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1998). *서양미술사: 미술현상의 시원부터 오늘의 미술까지*. 서울: 박영사.
- 이은경. (2002). 현대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 *생활과학연구*, 8, 33-52
- 정연자. (1998). 복식에 표현된 큐비즘에 관한 연구. *복식*, 39, 99-111.
- 정혜순. (1988). *기하학적 모티브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명희. (1990). *야수주의(Fauvism) 영향을 받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lackman, Cally. (2007). *100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London: Laurence King.
- David, Cottington. (2003). *큐비즘* (전건희 역). 파주: 열화당.
- Edward F. Fry. (1985). *큐비즘* (김인환 역). 서울: 미진사.
- H.W. Janson. (1998). *서양미술사* (이 일 역). 서울: 미진사.
- John Golding. (1988). *큐비즘* (황지우 역). 파주: 열화당.
- Neil, Cox. (2003). *입체주의* (천수원 역). 서울: 한길아트.
- Richard. Martin. (1999). *CUBISM AND FASHION*.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2003).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 시공아트 (원저 1999 출판)
- 2010~2013 런던 컬렉션. 삼성디자인넷. 자료 검색 일 2013. 1. 18,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2010~2013 밀라노 컬렉션. 삼성디자인넷. 자료 검색 일 2013. 2. 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2010~2013 파리 컬렉션. 삼성디자인넷. 자료 검색 일 2013. 2. 12,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